

독서교육의 새 판 짜기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책이란 우리의 아들딸이나 청소년들이 설명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면’ 읽으라고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독서를 하면서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다.” 교사 출신 프랑스 작가 다니엘 페나크가 교사 이력을 십분 발휘하여 쓴 독서 관련 에세이 『소설처럼』에 있는 구절이다. 저자는 무엇을 어떻게 읽든지, 읽은 후라도 책 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독서교육을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오히려 학생들을 독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했던 책인데 또 다시 펼쳐보게 되었다.



글 | 이 순 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연남고등학교 사서교사
soonogi@paran.com

올해 2월 19일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를 담당하는 교사들과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구축 중에 있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독후활동시스템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책을 읽고 인터넷 시스템에서 여섯 종류나 되는 독후활동에서 하나를 택하여 독서기록을 작성한 후 담당교사의 인증을 받게 된다. 이것을 연계된 학교도서관운영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의 누적된 도서관이용 독서기록을 포함한 대입전형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입력하면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연수 강사의 설명이 계속될 수록 마음은 점점 무겁고 답답해졌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짜여진 독후활동을 전제로 독서를 해야 한다면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빼앗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올려놓은 글을 인증만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전처럼 학생생활부 독서활동란에 직접 독서기록을 작성하는 수고는 덜 수 있겠지만 교사도 읽지 않은 책을 인증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까?

“ 독서교육의 새 판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독서교육을 지원하려면 책을 읽은 결과를 관리하고 평가하여 책을 읽히기 보다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

학생이 실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했는지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속에 만들어진 자료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각 학교 현장에서 운영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학생이 책을 읽고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상급학교 입시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생들만의 입 시도구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이 시스템을 반대하는 한 연합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시행 철회와 함께 독서교육의 새 판을 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서교육의 새 판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독서교육을 지원하려면 책을 읽은 결과를 관리하고 평가하여 책을 읽히기 보다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컴퓨터나 대중 매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없음을 호소하고 막상 책을 읽고자 하여도 무슨 책을 읽어야 할 지 난감해 한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 이들의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욕구가 책 읽기로 연결되고 책을 읽으며 재미와 즐거움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한 독서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책과 가까워지며 책 읽기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은 바로 학교도서관이다.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전국에 11,060곳이나 있지만 많은 경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6.5%에 불과하고 4,391곳은 단기계약의 임시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이상은 도서부원이나 학부모 등의 도움으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학교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와 같은 정규직 전문 인력의 충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배치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사서교사가 소신껏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하여 도서관 공간 일부가 자율학습실로 잠식되고, 예산도 학교경상운영비의 5%를 책정하라는 교육청의 권장사항은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과연계의 독서교육이나 도서관활용수업 등 도서관의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투자에 앞서 먼저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고대해 본다. ☹